

# ‘우아한 가’ 인기비결은 쾌속 전개

MBN 드라마 최고 시청률... 반환점 돌아 2막 진입

임수향 “엔딩마다 속 시원 다음 회 볼 수밖에”

배종옥 “악의 축인 제국의 종말 지켜봐 달라”

MBN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두 번이나 새로 쓴 수목극 ‘우아한 가’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2막에 진입한다. 이 작품은 7회 시청률이 날스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4.3%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25일 강남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임수향, 이장우, 배종옥이 참석해 작품의 뒷이야기와 2막 관련 포인트를 들려줬다.

15년 전 벌어진 엄마 살인사건의 범인을 쫓는 모석희 역의 임수향은 “처음에는 시청률이 3% 정도 나오면 포상 휴가를 보내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5%를 바라보고 있다. 뜨거운 여름에 땀 흘리며 촬영했는데 놀랍고 감사하다”고 인기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흥행 비결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빠른 전개를 많이 말씀해주시더라. 추석 연휴 후 특히 입소문이 났다. 또 모석희와 허운도(이장우 분)가 제국에게 늘 당하는 것 같으면서도 엔딩마다 속 시원한 장면이 나오니 다음 회를 볼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희 엄마 살인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석희와 운도가 어떻게 거대한 악인 제국(배종옥)에 어떻게 맞서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재밌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장우는 “좋은 작품, 배우, 스태프와 만나 일등석에 타고 편안하게 비행하는 기분”이라며 “만약 시청률 5%를 넘기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운도를 통해 인간미를 많이 살리자고 생각하고 연기한다. 힘을 빼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배종옥은 “시작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니 더 의미가 깊다”며 “포상 휴가는 무조건 가겠다. 또 시청률 9%까지 넘는다. 원래 시청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고 웃었다.

그는 그러면서 “군더더기 없는 전개가 인기 비결인 것 같다”라며 “또 악의 축인 제국이 어떤 종말을 맞을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신이 연기하는 제국 캐릭터에 대해 “남자의 세계에서 여자가 수장이 돼 욕망을 실현하고 정·재계를 휘두르는 것이 참 매력적”이라며 “제국은 판사 출신으로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조직에서 여자로서 넘을 수 없는 유리 천정을 봤고 남자들의 세계가 정·재계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아 비선 실세의 길을 택했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대 때부터 도시적인 이미지의 여배우로서 주체성 강한 역할 해왔는데, 최근에 또 ‘60일, 지정생존자’, ‘우아한 가’를 통해 연이어 그런 캐릭터를 보여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아한 가’는 재계 1위 철웅성 재벌가 밑바닥에 숨겨진 비극을 두고 이를 밝혀려는 자들과 숨기려는 자들의 목숨을 건 진실공방전을 밀도 있게 그려내 호평받고 있다. 매주 수·목요일 밤 11시 방송. /연합뉴스



임수향

# ‘그놈’이 온다... ‘그알’ 화성연쇄살인 2부작 특집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8일·다음 달 5일 방송

국내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가 최근 33년 만의 유력 용의자 확보로 전기를 맞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특집을 마련했다.

제작진은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 2회에 걸쳐 특집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25일 예고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지금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지 심층 분석한다.

방송 초반 미스터리, 미제 사건 취재에 특화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미 사건이 절정으로 치달았던 1992년 4월 28일 ‘6년간의 살인 - 화성연쇄살인사건’ 편에서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정체를 추적한 바 있다.

그리고 20여 년 후인 2011년 5월 7일에는 800회 특집에서 ‘사라진 악마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사건 당시 기록을 21세기 첨단 과학수사의 눈으로 살펴보고자 정교한 프로파일링으로 범인의 윤곽을 그려 내기도 했다.



오는 28일 1부에서는 과거 방송을 통해 축적된 단독 자료와 데이터를 활용해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와 과거 제작진이 예측했던 범인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또 범인 특장의 계기가 되었던 첨단 DNA 기법은 무엇인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용의자 혐의가 입증될지에 대해 따져본다.

다음 달 5일 2부에서는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었던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용의자 성향을 분석한다.

오는 28일 밤 11시 10분 방송. /연합뉴스

# 방탄소년단, 5억뷰 MV 8편... ‘피 땀 눈물’도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MV)가 유튜브 5억뷰를 돌파했다.

지난 2016년 10월 발매한 방탄소년단 정규 2집 ‘윙스(WINGS)’ 타이틀곡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는 25일 오전 9시 22분께 유튜브 조회수 5억 건을 넘겼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8억뷰 ‘DNA’를 비롯해 6억뷰 ‘불타오르네(FIRE)’, 5억뷰 ‘페이크 러브(FAKE LOVE)’와 ‘미크 드롭(MIC Drop)’ 리믹스, ‘아이돌(IDOL)’, ‘쩨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피 땀 눈물’까지 5억뷰를 넘긴 8편의 뮤직비디오를 갖게 됐다.

이는 지난날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로 세운 한국 가수 최다 5억뷰 뮤직비디오 기록을 자체 경신한 것이다.

‘피 땀 눈물’은 파워풀한 에너지가 돋보인 노래로, 유혹을 만난 소녀들의 갈등과 성장을 담았다. /연합뉴스



뮤직비디오는 세련된 영상미와 멤버들의 퍼포먼스가 조화를 이뤄 6분이 넘는 길이에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쿠퍼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동백꽃 필 무렵(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5 강력추천 배틀 트립	25 푸르기 식사교실 5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분야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30 뿌까	00 네오세모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2019 KBS광주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V-갤럭시워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맨 인 블랙스(재) 20 톤 위리 스킨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퐁치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신기루 식당	00 시크릿 부티크
11	35 UHD 숨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30 섹션 TV 연예통신 1~2부	10 점수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스포츠 다이어리 45 문화사책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재)

## EBS1

07:00 코요몽3	12:10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1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07:15 미스터리아	13:00 다큐 시선	18:00 생방송 특목! 특! 특! 나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아티스트의 북극여행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8:00 당동영 유치원	14:45 자이언트 팽TV(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55 미스터리아	20:00 4남매 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0 코요몽3(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아시아 감초기행
09:30 자이언트 팽TV	15:5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유목민의 젓갈 몽골 오논강〉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올리 앤 문(재)	〈굴러굴러 가다 보면 4부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영 유치원(재)	지리산 낭만 오토바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다큐 시선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든지 뮤직박스	22:45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6일(음 8월 28일 丙寅)

<p>36년생 과산한다면 난관에 봉착한다. 48년생 함께함이 손쉬울 것이다. 60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72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연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다. 84년생 재수불공을 올린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96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5, 05</p>	<p>30년생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다. 42년생 맞닥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살펴볼 일이다. 54년생 겉모습까지 신경 썼을 때 값을 할 것이다. 66년생 여권이 갖춰져 가고 있는 단계이다. 78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90년생 집착은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약재가 된다. 행운의 숫자 : 25, 26</p>
<p>37년생 역할이 가장 되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9년생 불협화음이 보인다면 주관적인 면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61년생 뜬구름 잡으려 하지 말라. 73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속출하리라. 85년생 중량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7년생 한 템포 늦게 추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0, 55</p>	<p>31년생 상대의 내심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43년생 방만하거나 무관심 한다면 상실 할 수도 있다. 55년생 파악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임을 감안하라. 67년생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니 신중하라. 79년생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91년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83, 13</p>
<p>38년생 앞뜰하다면 생활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50년생 과감한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62년생 별 것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74년생 아차하면 후회할 것이니 시간 할애를 잘 해야 한다. 86년생 무리하게 행하려 한다면 하지 않음만 못 하다. 98년생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15, 77</p>	<p>32년생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매우 불편하리라. 44년생 다채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56년생 소모적인 걱정은 심신만 쇠진케 할 뿐이니라. 68년생 보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 80년생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연쇄적으로 술술 풀리게 되어 있다. 92년생 높으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9, 16</p>
<p>39년생 기본적인 관리에 충실 한다면 문제없겠다. 51년생 분담해서 이행한다면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63년생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게 되는 양태이다. 75년생 학수고대 해오던 결과가 도출 될 것이니라. 87년생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99년생 강풍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9, 36</p>	<p>33년생 심리적인 압박감이 따를 수 있다. 45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임취월장하리라. 57년생 너무 늦었으니 살기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69년생 반복되는 법이니 항상 잊지 아니하고 새겨두어야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81년생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93년생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길잡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7, 28</p>
<p>40년생 알고 있었다면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52년생 무의미한 판국이다. 64년생 안정 궤도로 진입했다. 76년생 다채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88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라. 00년생 타인의 실행 방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의 징표임을 알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8, 49</p>	<p>34년생 마음에 통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46년생 내실을 기하자. 58년생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70년생 여태까지 공들여 왔던 것이 사라질 수 있다. 82년생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 줘야만 한다. 94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니라. 행운의 숫자 : 91, 45</p>
<p>41년생 작은 현상을 무시하면 큰 화를 당하리라. 53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65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야 보일 것이다. 77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행통 하리라. 89년생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01년생 옳다고 확신한다면 밀어붙여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6, 65</p>	<p>35년생 마무리가 확실해야 한다. 47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니 심기일전 하자. 59년생 불타오르는 기세이므로 잘 살펴봐야겠다. 71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83년생 일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 95년생 조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책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3, 11</p>